

목어

선운사의 전투기

선운사 동백들이 지금 막 꽃봉우리를 열

그런데 선운사의 그 고즈넉한 하늘이 요즘 거의 매일 무너질 것만 같이 요란하게 흔들린다.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군사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공음이 지나쳐갈 때마다 큰 아쉬움이 남는다.

미군은 이 땅에서 민가 주변에 폭탄을 떨어뜨리며 훈련을 해도,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국내법의 저속을 받지 않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도술산 선운사를 하루에도 몇번씩 "우르릉! 우르릉!" 우렁차게 뒤흔들며 오는 선운사의 전투기.

도수(선운사 법사·본지 논설위원)

정확측 반발 여전...성사 '안갯속'

'조계종 사면' 초파일 이전 가능한가

총무원, 종헌특위 조속 개최 촉구키로

사면심사위 구성...분리사면설도 나와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사면을 실시하기 위한 종헌 개정안을 종헌·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에 넘겨 심의한 후 다음 중회에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이후 전개 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은 부처님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종헌 특위가 빨리 열리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4월 중 147회 임시총회가 열려 종헌이 개정될 경우라도 어떤 분위기에서 개정되느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진다.

종헌 개정 분위기는 아무래도 사면 대상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종헌 개정 분위기는 아무래도 사면 대상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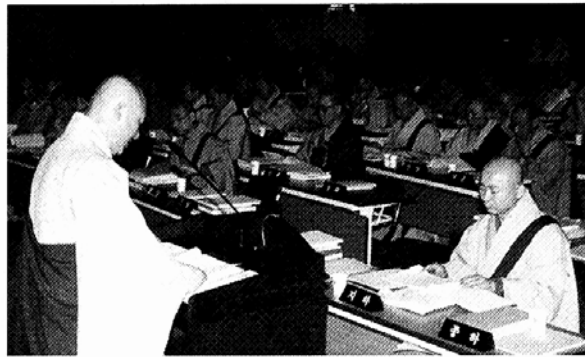
에 대한 접수를 실시, 회기 내에 사면동의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종헌 개정 심의가 진행될 경우 사면 접수 및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다.

자칫 집행부와 종회의의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헌 개정 분위기는 아무래도 사면 대상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종헌 개정 분위기는 아무래도 사면 대상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4~18일 열린 중앙총회는 사면 실시를 위해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논의키로 했다.

대로 실시하되, 종헌에 규정된대로 참회하지 않은 스님들은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62년 이후 제적·별면의 징계자는 250여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환속했거나 다른 종단으로 이적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면대상자는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면·복권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다. 방침도 세워졌다. 이와 관련 호법부장 증지스님은 18일 중앙총회 총책질의 답변을 통해 "기준에는 사면·복권 심사를 집행부에서 실시해왔으나, 이번의 경우 엄정한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도 중단을 화합이라는 데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포교법 개정 내용과 의미

"신도국 신설 업무일원화"

포교원에 '군포교위' 설치 군포교 활력

이번 포교법 개정은 신도교육 업무를 통일하고 미비점이 많은 종법 조문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94년 9월 29일 종헌 개정을 통해 발원으로 독립한 포교원은 지난해 9월 신도법을 개정, 신도등록 사업 중심에서 신도의 입교, 기본교육 및 재교육의 의무화, 수계와 위계 등 포교원의 기본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도관련 사업의 체계를 갖춘 바 있다.

또 포교원이 그동안 군포교 32년의 역사에서 군포교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적인 관심과 관리가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포교원 산하에 군포교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각종 직책의 구분과 업무를 명문화했다. 포교사를 재가자로 국한하고 전문분야에서 3년간 활동한 포교사를 전문포교사로 우대하도록 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교학 바로세워야 바른 수행길 제시

선과 교학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요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선(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은 선과 교학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교학이 없다면 왜 선정을 닦아야 하는지, 선정을 닦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 뒤에 우리는 어떠한 경계를 체득하게 되는지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못하고 화두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화두를 해설하는 책까지 펴내고 있다.

깨달음이란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증득하는 것이다. 물론 무분별지를 증득한 뒤에 다시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를 나누는 세계를 설명한 것이 화엄(華嚴)의 세계이지만, 그야말로 무분별지를 증득한 뒤의 이야기이니, 논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무분별후득지는 뒤로 미루어놓고 설명하기로 하자.

무분별지란 인법양공(人法兩空)이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인공(人空)이란 인식주관이 헤아려 생각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끊어져서 일체의 번뇌와 망상이 끊어진 것을 설명한다. 법공(法空)이란 인식주관이 헤아려

생각하고 분별하여 생겨나는 인식현상(法)이 끊어진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연기설을 설하신 것은 바로 중생이 헤아려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망녕된 것인가를 펼쳐보이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생의 마음 속에서 열두 가지 연기(緣起)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세히 밝히신 것이다.

이렇듯 중생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무명(無明)이라는 미혹 때문에 자신의 탐욕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허망한 것들이라고 설교해 주신 것이다.



변상섭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고 웃으며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망한 인식을 일으키는 한 생각을 끊어 버리면 곧 슬픔도 고통도 없는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희망한 표상을 만들어내는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작용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인공(人空)이며, 그 마음에 일어난 허망한 표상들이 끊어져 없어져버린 것이 법공(法空)이다.

따라서 옛 선사들이 공통적으로 "묘한 깨달음은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하고 계신다.

이제 깨달음의 세계가 어떠한 경계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니, 선을 닦는 목적과 방법이 또한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화두를 해설해버리면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의심을 일으켜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정말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를 공부하는

한국고승 초청 제10회 법왕사 경율론 삼장 백고좌(百高座) 대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법왕사에서는 부처님 출가일인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백일간 한국 불교의 큰스님 1백인을 초청,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百高座)법회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백일 동안 1백인의 큰스님을 모셔서 설법케 하는 법회로 법왕사에서는 7년전부터 매년 한차례 이상 법회를 열어 영남의 대표적인 대중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두루 공부하는 「경율론 삼장의 세계」를 주제로 전국의 고승대덕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불자들에게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미술산 법왕사 證明 : 圓空 正無 住持 實相 監證

약도



법왕사 교통편: 일반버스 401, 404, 405, 449, 434, 624, 104, 좌석버스 704, 경부고속도로 복대구 휴게소에서 나와 신현대로를 타고 오셔서 상동교를 지나 오시면 됩니다.

법회 일정

- 일시: 불기 2544년 3월 13일 ~ 6월 20일(100일간)
장소: 법왕사 큰법당(대구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시간: 오전 10시 30분(108배) 11시부터 법문
문의: 법왕사 중무소 ☎ 053-766-3747, 9088

- 법회기간 중에는 점심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기간중에는 영가천도 49재와 100일 기도를 동시에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에 법사로 모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백고좌법회에 동참하실 전국의 사찰이나 각 신행단체는 미리미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왕사 동두관음상